

정보화 사회에서의 노인가족의 소외

어 성 연(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I. 서론 및 문제제기

정보화 기술과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에 어느덧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상업적인 용도는 물론, 교육, 의료 서비스, 지역사회에서의 참여 그리고 정부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에 이르기 까지 인터넷은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매디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신조어인 전자정부라는 용어 역시 우리의 담론에서 생소한 용어가 아니다. 월드뱅크는 전자정부를 “정부의 대 국민 그리고 대기업적 서비스와 정부의 기타 사업을 위해서 정보화 기술(인터넷과 같은)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World Bank, 2006: recited from Auh & Shelley, 2007). 최근 들어 전자 정부는 민주적 정부라던가 공익 서비스에 관한 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의 담론에 중심적인 어휘로 떠오르게 되었다. 전자 정부는 좀더 빠르고 나은 질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과 상공분야와 정부와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일반 시민들의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과 참여를 통해 힘을 얻게 하고,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행정절차 보다 시간에서나 비용적 측면에서 좀더 효율적인 행정절차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Auh & Shelley, 2006, 2007; Daukantas, 2003; Krueger, 2002; Takao, 2004). 최근 미국에서는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넘어서, Medicaid나 WIC 과 같은 연방 지원 프로그램들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전자 신청서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e-case management services를 도입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주정부의 전자정부 서비스 영역을 복지서비스의 제공의 영역으로 까지 확대 하고 있는 추세이다(Auh & Shelley, 2007; Cook, Lavigne, Pagano, Dawes & Pardo, 2002).

하지만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제공이라던가 서비스는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시민들에게만 해당하는 서비스가 된다. 전자정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사각지대를 이르는 정보격차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다. 정보격차란 전자-시민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전자 정부의 여러 가지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의 시민들의 기회의 균등이라던가 전자정부 서비스의 접근성의 평등을 논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계층을 찾아 내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 된다. 정보격차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겠지만(Attewell, 2001), 가장 기본적인 논의는 정보격차의 제 1단계인 접근성에 관한 것이 된다. 미국 정보 통신부의 가장 최근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인터넷에 관한 접근성은 국가 전반에 걸쳐서 증가 하였다고 하는데 특히 저소득층의 가정, 낮은 교육 수준의 가정, minority 집단, 그리고 노인들의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은 드라마틱 한 수준이라고 한다(Rohde & Shapiro, 2000). 하지만 그 보고서를 좀더 자세히 살펴 보면, 저소득층, 낮은 교육 수준의 가정, 그리고 노인들의 접근성은 여전히 국가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연령은 인터넷과 컴퓨터의

접근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미국은 물론, 한국 그리고 독일의 연구에서도 보고 된 바 있다. 그 한 예로, <표 1>은 미국과 한국 시민들의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연령대 별로 보여 주고 있다.

<표 1> 미국과 한국의 시민들의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의 연령대 별 백분율 분석

Internet Access (%)	Country	Age Brackets			Total
		18-24	25-49	50 plus	
	U.S. (CPS 2000)	56.8	55.4	29.6	58
	Korea (KISDI 2006)	93.7	96-93	54.8	78

Note: U.S.=CurrentPopulationSurveyof2000data
Korea=KoreaInstituteSocietyDevelopmentInstituteSurveyof2006data

<표 1>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2000년도 미국 사회에서는 단지 29.6%의 50세 이상의 노인들이 인터넷에 접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25-49세의 성인의 55.4%와 18-24세의 56.8%가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06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49세 미만의 성인의 경우 90% 이상이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보인 반면에 5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단지 55%만이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보고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 모두 노인들의 집단에서의 낮은 수준에서의 접근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연령변인을 가지고 제일단계의 정보격차의 위험성을 연구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에서의 노인가족의 소외의 위험성을 밝혀내는 것이다. 미국에서 확률표집을 통해 수집된 지역사회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격차의 위험성에 빠진 사회적 계층을 파악하고, 나아가 연령관련 변인들을 가지고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정보사회에서의 노인가정의 소외를 논의 하고자 한다. 한국은 지구촌 사회에서 정보 통신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고, Cyber Korea 21이나 e-Korea, 등의 정책등을 제안함으로써 빠르고 더 나은 질의 대 시민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자정부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전자정부에 관한 연구들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에서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교환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인(연령, 성별, 수입, 교육)들의 영향과 개인적 특성변인(거주지역, 독거노인상태 그리고 건강상태)의 영향이 logistic model들을 이용해서 분석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가정한다.

- > 젊은 연령 집단보다는 노인 집단이
- > 남성보다 여성집단이
- > 교육을 많이 받은 집단 보다는 교육을 덜 받은 집단이
- > 고소득층 보다는 저소득층 가정이
- > 독거노인이 아닌 경우 보다 독거노인의 경우가
- > 도시 지역거주민 보다 비도시 지역 거주민이
- > 건강한 사람보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지각한 사람들이

더욱더 정보격차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즉 정보화 사회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하였다.

II. 자료 및 연구 방법

1. 자료

아이오와 주정부 노인복지국과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가족정책센터와 교육정책센터의 공조에 의해 아이오와 가족 설문은 2005년 가을부터 2006년 2월까지 실시 되었다. 확률표집에 의해서 6,400가구가 선정이 되었고 설문자료가 발송되었고 총 4,010 부가 회수 되었다(63% 회수율). 이 중 사용 가능한 4,00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

전자 정부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설문에서는 가정, 일터, 학교, 도서관 그리고 기타 장소에서의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였다. Dummy 변인 “접근성”은 위에 나열된 장소중에서 한 곳이라도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1”로 표시 되었고, 접근성이 전혀 보고 되지 않은 경우에 “0”로 표시 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이전의 연구들에서 가정이나 일터 등의 일상생활의 하나의 장소에서의 인터넷 접근성을 독립적으로 다루며 분석을 하던 방식과는 달리 일상생활에서의 접근성을 통합하여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을 가진다. 아이오와 가족 설문은 인구학적 변인들-연령, 교육, 결혼상태, 인종, 주거지역, 연간 가계수입, 등을 측정하였고 또한 독거노인의 지위가 “예/아니오”로 측정되었다. 본인이 인지한 건강상태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매우 양호함(5)에서 매우 나쁨(1)으로 측정 되었다.

3. Model Specification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분석하기 위해서 접근성은 연령집단(categorical), 성별(남성), 수입, 교육수준, 비-독거노인의 지위, 비-도시거주의 지위 그리고 건강상태의 function으로 보았다. 총 2단계에 거쳐서 블록화된 변인들이 투입되었는데; 연령, 수입, 교육수준 과 같은 구조적 변인들이 제 1단계에서 투입되었고, 제 2단계에서 개인적 특성 변인들 - 독거노인 지위, 주거지역, 그리고 건강상태가 투입되어 모델을 테스트 했다.

III. 결과

1. 참여한 가구의 인구통계학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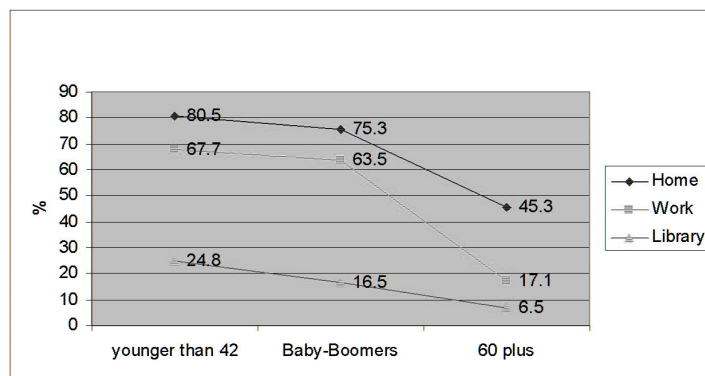
총 4,002부의 설문지가 본 연구를 위해서 분석되었다. 설문지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56.03세였다. 전체 응답자 중, 1,457가구(39.8%)가 60세 이상 노인들의 가구였고 1,432 가구(39.1%)가 42세에서 59세에 이르는 중년층의 가구였고, 770 가구(21%)가 42세 이하의 가장을 가진 가구로 보고 되었다.

약 반정도의 응답자들(56.4%)이 비도시 지역에 살고 있었고 대략 1,721가구(43.6%)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93.2%) 고등학교 졸업 과 그 이상의 학력수준을 보였다. 전체의 반정도의 응답자 들이(61.4%) 2년제 대학 과 그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2004년도 가계 소득은 중년층이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여 주었고(\$67,725.24) 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고한 집단은 젊은 연령(가장의 나이 42세 이하)대였다(\$61,604.67). 노인가구가 가장 낮은 수준의 여간 소득(\$42,288.62)를 보고 하였다.

개인특성에 관한 사항으로는 438가구(12%)가 독거노인들 이였고,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에 응답한 3,953가구 중 621가구(15.7%)는 최상의 건강상태를, 1,541가구(39%)는 매우 양호한 건강상태를 그리고 1,199가구(30.3%)는 양호한 건강상태를 보고하여 대부분의 참가자들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인터넷의 대중성의 증가

전체 응답자의 72%가(총 2,798 가구) 가정, 일터, 도서관, 학교 그리고 기타 장소에서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이 결과는 41.5%로 보고된 2000년도의 미국 국가적 지표에 비하여 매우 증가한 양상이다. 가장 일상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가정(64.9%)에서였고, 그 다음으로 일터(47.4%)가 지목되었다. 응답자들은 그 밖에 도서관(14.6%), 학교(12.9%) 그리고 기타 장소(6.8%)에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었다.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은 연령대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령대 별 인터넷의 접근성(비율)

3. 가설검증(Logistic Regression Models 분석 결과)

인터넷 접근성에 대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델 검증은 두 단계로 이루어 졌는데 - 배경적인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투입이 되고 나중에 개인적 특성 변인들이 모델에 투입이 되었다. 모델이 진행함에 따라 pseudo R square measure 그리고 Nagelkerke R Square 값들이, 413에서 .437로 약간의 증가를 보여 주었고, percentage of corrected cases 들은 79.5%에서 80.3%로

증가 하였다. 두 모델 모두 데이터와 잘 부합하는 것으로 적합성 검증 결과 나타났는데 예로, 첫 번째 단계에서 $c^2=14.226$, $df=8$, $p=0.76$ 와 두번째 단계에서 $c^2=4.903$, $df=8$, $p=0.768$ 의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성차와 소득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기타 제안된 가설들은 모두 수용 되었다. 소득의 경우 Odds Ratio의 값이 1을 보임으로써 수입에 따라서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은 차이가 없음을 보여 준다. 성차 역시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살짝 높은 수준의 접근성의 기회를 보였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2> 인터넷 접근성에 대한 Logistic Regression Model들의 검증

Variables	Coefficient	SE	Wald	Probability T =X	Odds Ratio
<i>Step 1</i>					
Constant	-2.210	0.158	195.012	0.000	0.110
Age group			235.356	0.000	
Younger than 42	2.2316	0.189	150.822	0.000	10.136
42-59	1.323	0.113	137.461	0.000	3.753
Sex(Male)	0.047	0.106	0.192	0.662	1.048
Income	0.000	0.000	104.905	0.000	1.000
Education	0.502	0.047	112.486	0.000	1.652
<i>Step 2</i>					
Constant	-3.292	0.254	158.537	0.000	0.041
Age group			140.972	0.000	
Younger than 42	1.984	0.195	103.486	0.000	7.275
42-59	1.1075	0.122	78.123	0.000	2.931
Sex(Male)	-0.124	0.114	1.183	0.277	0.883
Income	0.000	0.000	64.116	0.000	1.000
Education	0.472	0.049	94.724	0.000	1.604
None-SLA status	1.014	0.167	36.920	0.001	2.757
Non-Metro County	-0.366	0.106	11.940	0.000	0.693
Health Condition	0.249	0.055	20.388	0.000	1.282
Model Fit Test					
Step 1	Nagelkerke				
	R Square value		.413		
	% of Corrected Cases		79.5%		
	X^2 Test				$X^2=14.226$, $df=8$, $p=0.76$
Step 2	Nagelkerke				
	R Square value		.437		
	% of Corrected Cases		80.3%		
	X^2 Test				$X^2=4.903$, $df=8$, $p=0.768$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터넷의 접근성의 증가를 보여줌으로써 미국사회에서의 인터넷의 대중성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대표성을 가진 표본자료로서, 다단계 계층적 확률 표집에 의해서 2005/6년에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참가자 중 72%가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2000년에 수집된 미국 정보통신연구소의 보고서에는 41.5%의 접근성을 보여준다. 모든 연령대에서 2000년도에 비해서 접근성이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접근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앞서 논의 된 바와 같이 중년층과 젊은 성인층과 비교해서 노인층의 경우 인터넷에 대한 낮은 접근성을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연령 변인은 강력하고도 robust 한 접근성의 예측 변인 이었다. 인터넷 접근성에 있어서 성별과 수입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 미국에서는 가정에 인터넷이 없더라도 일터, 도서관, 학교 그리고 기타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교육수준은 연령변인과 함께 강력한 정보격차의 예측 변인 이었다. 지역간의 정보격차가 줄었다는 미국 정보통신부의 보고서와는 달리 본 연구의 모델은 인터넷의 접근성에 대한 지역차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 개인이 인지한 건강상태와 독거노인 지위에 따라 인터넷의 접근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몸이 불편 할수록, 또한 혼자 사는 노인 일수록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의 가능성은 2.7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의 접근성은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독거노인의 지위 그리고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게 예측되었다. 즉 노인이거나, 교육수준이 낮거나,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거나, 독거노인이거나 혹은 건강상태가 나쁜 사람일수록 인터넷의 접근성에 대한 기회가 적고, 정보격차에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인자가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증가하게 됨을 모델을 통하여 시연하였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본 연구의 모델 통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독거노인의 경우 정보격차에 의한 정보화 사회에서의 소외의 위험이 큰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러한 노인 가족들은 바로 가족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은 집단이고 현재 미국 정부가 지향하는 전자 정부 서비스의 주요 사업 대상군 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제 2 단계의 정보격차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예로, 노인들의 e-literacy의 수준이 구조적 변인들은 물론, 개인 특성적 변인들 과 함께 분석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 학습자들의 정보화에 대한 요구 분석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의 대표적인 지역사회의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 졌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자료수집과 분석 연구가 한국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인터넷과 더불어 전자 정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디움은 휴대폰이다. 인터넷보다는 사용방법이 비교적 간단한 휴대폰을 이용한 가족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역시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Attewell, P.(2001). The first and the second digital divide. *Sociology of Education*, 74, 252-259.
- Auh, S. & Shelley, M. C. II(2006). The needs and satisfaction on aging and disability resources in a rural state in the U. S.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althy Aging and Longevity*(WHO Sponsored), 88-93.
- Auh, S. & Shelley, M. C. II.(2007, November). *A comparison study on the E-Government Services: Focusing on Aging and Disability Resources in the U.S. and the Other Countries*. Ames, IA: Research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 Cook, M. E., LaVigne, M.F., Pagano, C.M., Dawes, S.S., & Pardo, T. A.(2002). *Making a Case for Local E-Government*. Albany, NY: University at Albany, SUNY.
- Daukantas, P.(2003). E-gov sites score high on user satisfaction survey.(Webworks; Americ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Government Computer News*, 22(Sept22,2003), 11.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2006). *2006 Indicators of Digital Divide*. Seoul, Korea: KoreaInformationSocietyDevelopmentInstitute.
- Krueger, C. C.(2002). Assessing the potential of Internet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Politics Research*, 30(5), 476-498.
- Rohde, G. & Shapiro, R.(2000). *Falling Through the Net: Toward Digital Inclusion- A Report on Americans' Access to Technology Tools*. Washington, D.C.: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 Takao, Y.(2004). Democratic renewal by “digital” local government in Japan. *Pacific Affairs*, 77(2), 180-181.

정보화 사회에서의 노인가족의 소외

권 유 진(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최근 합계 출산률 1.08명('05년 기준)인 초저출산 추세와 더불어 의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노년층 인구의 증가는 우리나라를 고령화 사회에 빠르게 진입하도록 만들어왔다. 2020년 기준으로 고령화 지수가 1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노년층의 인구가 유년층의 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고령화 사회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또 하나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인터넷을 기저로 하는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이다.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 공익 서비스, 각종 의료 서비스는 물론이고 인터넷을 통해 세계가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유용한 정보들을 확보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며, 가장 큰 과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노년층의 정보 격차, 즉 정보에 대한 접근의 취약성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는 우리나라로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령층의 인터넷 사용 비율이 현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1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98.5%인 반면에, 50대 이상 고령층의 이용률은 28.3%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노령인구의 정보 격차가 심각한 상태이며, 발제자의 논의와 같이 노인 가족의 소외로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논의가 큰 의미가 가진다고 보여진다.

노인의 정보 격차의 문제는 크게 정보 접근의 격차, 정보 이용능력의 격차, 정보 활용의 격차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중 발제자는 첫 단계로 노년층의 정보 접근성의 격차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연령, 교육정도, 독거노인의 지위, 거주 지역, 건강의 정도에 따라 정보 격차의 위험에 빠져서 결국은 소외 현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논지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토론자는 기본적으로 발제자의 논의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논지를 보완·추가하고자 한다.

첫째, 발제 제목에 제시한 정보화 사회에서의 노인 가족의 소외로 제시하고 있으나, 발제 내용은 정보 접근의 격차에서 기인하는 노인소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연구의 범위 설정에 있어서 좀 더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다. 둘째, 미국에서 노인의 정보 격차로 인해 노인층이 미국 전자정부의 주요 서비스 사업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에 한국의 관련정책(예: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노인의 정보 격차 현황 및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과 같은 나라는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캐나다,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들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종합 정보 접근 체계를 형성하여 고령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부를 중심으로 노인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더욱 체계적이고 가속화되어야 할 것이

다. 발제자의 제언에서처럼 휴대폰은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대중화 되어 있는 만큼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휴대폰 등과 같은 대중적인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발제자가 제언한 바와 같이 제 2단계로서 정보격차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노인의 정보 이용능력 격차와 활용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보 이용 능력과 활용 격차는 노인에게 대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의 강화 방안과 노인의 평생교육차원에서의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고령층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정보 격차 문제는 비단, 정보 활용과 실효성의 차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교류의 어려움,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의 의사소통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의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가족 및 지역 사회와의 의사소통 단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족관계 관련 후속 연구들과 관련 정책의 요구가 시급해지는 것이다.